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3. 1. 26.

기 획 재 정 부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 (요약)

1. 추진배경 및 성과

- (배경) 기후변화 대응·디지털 전환 등 개발재원 수요는 확대된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개도국 경제상황 불확실성 증대
 - ⇒ 국격에 걸맞는 개발협력 수행으로 글로벌 가치실현 및 개도국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이들과의 경제협력도 강화 필요
- ('22년 성과)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도 역대 최대 승인 실적(3.1조원) 및 역대 최고 집행률(98.9%) 달성 * '21년 2.6조원, 97.5%
 - 우리기업 대형사업 수주 지원(이집트 전동차 사업, 한-베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및 주요협력국(인니, 필리핀, 케냐)과 F/A 규모 확대

2. 추진전략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 우리나라와 경험 강화

- (운용 규모) ODA 규모 확대 목표*를 고려해 3년간('23~'25) 11.7조원 승인 및 5조원 집행 추진 ('22~'24년 11.4조원/4.5조원)
 - * ODA 규모를 세계 10위('21년 15위)로 확대(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분야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ICT 수요 확대 및 팬데믹 안정세를 반영 → 그린·디지털 분야에 자원 투입 집중
 - * 중점분야 승인 규모('23/'25년, 억불): 그린(12/17), 디지털(7/9), 보건(5/7)
- (지역별) 경험 확대 필요성, 인프라 수요가 큰 아시아에 집중하고, 아프리카·중남미 전략적 투자로 우리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
 - * 지역별 승인 비중('23~'25년, %): 아시아(60~70), 아프리카(20~30), 중남미(10~20)



3. 중점 추진과제

① 전략적 사업 추진

- ① (양자) '22년 약 2배 확대된 F/A*를 바탕으로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 지속 및 신규협력국 추가(우크라이나 등)

* ('21년말) 11개국, 89억불 → ('22년말) **15개국, 167억불** (+4개국, 78억불)

- ② (협조용자) 국제금융기구 네트워크를 활용, 직접 사업 발굴이 어려운 중남미 등 진출 기회 확보 및 혁신적 금융수단* 시범 참여

* (예) 既지원 개발원조 사업에 보증을 통한 재원 추가 확보 등

② 개발환경변화 대응

- ① (비구속성) 비구속성 60% 목표(~25년)·구속성¹⁾ 원조 제한국 확대²⁾ 전망
→ 우리기업 우위 분야 후보사업 발굴 및 소규모 사업부터 개방

* 1) 차관사업 재화용역 조달을 공여국 기업으로 제한, 2) 1인당 GNI 4,256\$~('22.7월 기준)

- ② (프로그램차관) 경험 확대 가능성·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개국* 대상 양자 프로그램차관 시범 사업 발굴 추진

* (아시아) 인니, 베트남 등 6개국, (아프리카) 이집트 등 3개국, (중남미) 콜롬비아 등 2개국

- ③ (그린/디지털) '25년까지 쏘사업에 기후위험 관리* 전면 적용 및 ICT 인프라(케냐 스마트 DMC 개발사업) 등 디지털 사업 발굴 확대

* 사업발굴-실행-평가 쏘단계에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반영해 개도국 기후 대응 지원

③ 수원국 위기관리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 ① (수원국 위기관리) 수원국 경제·사회 위기 모니터링 및 필요시 긴급지원(긴급기자재차관)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에 동참

- ② (체계정비) 외화차관 집행수요 증가에 따른 외화금고 신설/직매입 추진 및 F/S 내실화를 위한 후보사업 조기 확정(N-1년)

④ EDCF 인지도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① (인지도 제고) 수원국 현지 EDCF 성과공유(캄보디아 워크숍 개최) 및 인턴파견, 국내대학원 EDCF과정 개설 등 청년전문가 육성

- ② (협력 강화) 범부처 유무상사업 연계 강화 및 DFI 협력 채널 신설(英 BII 등)/기업간담회 정례적 개최 등 대내외 협력 체계 구축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중기 운용전략	4
1. 기본 방향	4
2. 중기 운용 규모	5
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	6
III . 중점 추진과제	7
1. 전략적 사업 추진	7
2. 개발환경변화 대응	8
3. 위기관리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9
4. EDCF 인지도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10
IV . 향후 추진계획	11

I. 추진 배경

1 대내외 개발협력 환경

- ① **(개발 아젠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등 그린·디지털 분야에 개발재원 수요 확대
-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확인 및 지원 기금 설립 합의 등 개도국 지원 필요성에 공감('22.11월, UN COP27)
 - 팬데믹 계기 선진국/개도국간 디지털 불평등 극명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
- * 개도국의 디지털 기반 산업 발전 전략 수립, 개도국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
- ② **(개도국 경기침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개도국 자본유출* 등 개도국 경제상황 불확실성 증대
- * 개도국 자금 유입(OECD, 역발: 직접투자('21년) 2→('22년)△103, 간접투자('21년)90→('22년) △78
-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22.4월)에 이어 가나도 채무불이행을 선언('22.12월)하는 등 개도국 채무불이행 위험 급증 우려
- ③ **(비구속성 원조확대)** 장기적으로는 개도국들의 소득증가로 필리핀, 인니 등 EDCF 상위협력국이 구속성¹⁾ 원조국가를 졸업²⁾할 전망³⁾
- * 1) 사업 참여 자격을 공여국 기업으로 제한, 2) 2년 연속 1인당 GNI 4,256\$~ ('22.7월 기준)
3) EDCF 중점지원국 중 구속성 원조 제한국: ('22년) 3개국 → ('27년) 10개국 전망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등 국제사회 및 수원국에서도 개발원조 사업의 비구속성 비율 확대 지속 요구 중
- ④ **(ODA 확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ODA 규모 확대 및 질적으로도 진일보한 ODA 전략 필요
- * ODA 규모를 세계 10위('21년 15위)로 확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개도국의 산업발전·경제안정 지원이라는 EDCF 목표 실현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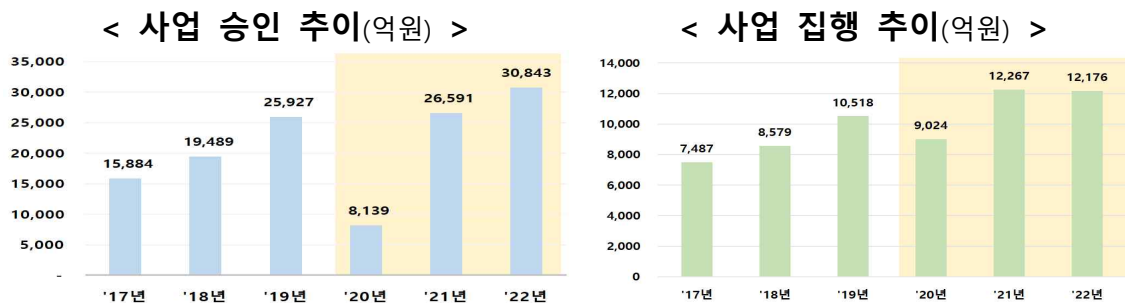
⇒ 국격에 걸맞은 개발협력 수행으로 글로벌 가치실현 및 개도국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

2 2022년 EDCF 운용 현황

2-1. 추진 실적

① **(지원 규모)** 팬데믹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세계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지원 실적 달성

- **(승인)** 전년도 승인액(26,591억원) 대비 16.0% 증가한 3.1조원 (총 13개국, 21개 사업) 승인으로 역대 최고 승인 실적 기록
- **(집행)** '22년 집행 목표(12,306억원) 대비 98.9%인 1.2조원 달성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개도국 경제·사회 위기 대응 집중 시기

② **(분야별 승인)**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22.1월)상 중점 추진 분야인 그린·디지털 분야 지원 목표 초과 달성

구 분	'22년 승인목표(억불)	'22년 실적(억불)	목표달성률(%)
그린	8.0	14.9	185.8%
디지털	6.0	12.1	202.4%
보건	7.0	6.6	94.2%
합 계	21.0	33.6	160.0%

2-2. 주요 성과

① **(개발효과성 제고)**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을 위한 EDCF 기본 약정(F/A) 확대·신규 체결 및 신규 정책협의 개최 등 외연 확장

- 필리핀·인니·케냐 등 주요 협력국과 F/A 규모 확대(약 2배)*, 인도·코트디부아르·르완다 등과 신규 F/A 체결 협의 개시

* (필) 6년 10억\$ → 5년 30억\$, (인니) 6년 6억\$ → 5년 15억\$, (케) 3년 3억\$ → 5년 10억\$

- 특히 르완다는 최초, 키르기스스탄은 '15년 이후 첫 정책 협의를 통해 F/A 신속 추진 합의, 중기후보사업 발굴 등 성과

- ② **(우리기업 진출지원)** EDCF를 마중물로 우리기업의 대형사업 수주 직접 지원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별 맞춤형 접근
- 이집트 전동차 사업에 전략적 패키지 금융지원(총 5.6억\$)으로 외국기업(스페인 등)과 경쟁입찰에서 우리기업 수주('22.7월)
 - 대형 투자 수요가 풍부한 베트남과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및 고속철·메트로 건설 등 고부가 대형사업 발굴 합의('22.12월)
- ③ **(개발환경변화 대응)** 개도국의 소득 증가, 민간부문 확대에 대응해 EDCF의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
- 원조를 넘어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개발금융수단으로서 EDCF의 새로운 방향성을 선포('22.7월, EDCF 비전선포식)

< EDCF의 미래비전('22.7월) >

- ① 민간부문 개발 확대를 위해 對정부 차관 위주에서 나아가 출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 적극 활용 및 MDB·DFI 등과 공동사업 발굴 강화
 - ② 개도국의 분야별·주제별 개발 계획에 대한 종합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 지향
 - ③ 그린·디지털 전환, 제조업 기반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EDCF가 개도국의 산업 고도화 협력 동반자로 자리매김
- 대내외 개발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차관 운용전략 수립 및 비구속성 가이드라인 마련
 -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대륙에 제2의 EDCF 상위협력국 육성을 위한 아프리카 EDCF 지원 고도화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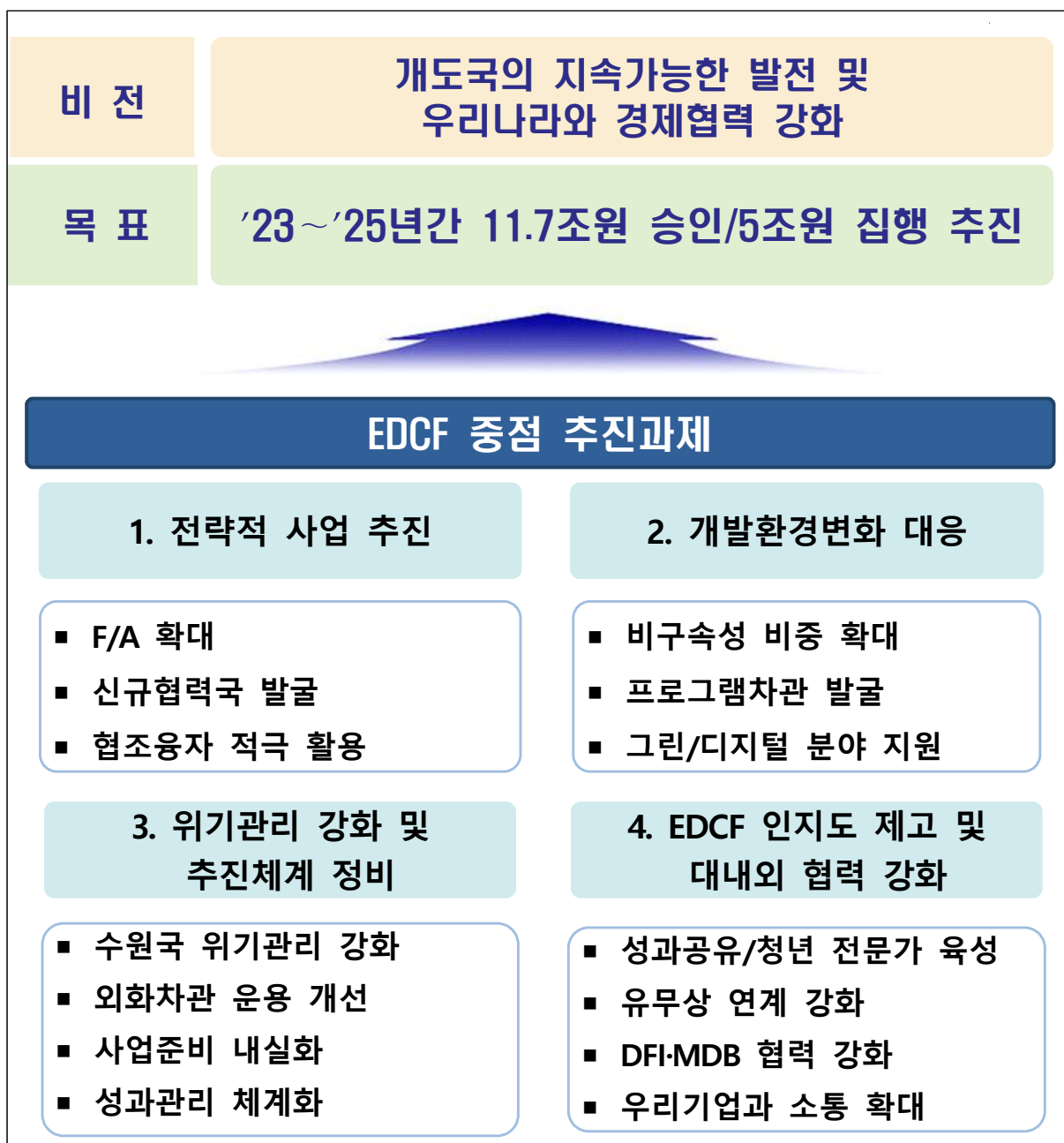
2-3. 향후 과제

- ① 대형 랜드마크 사업 확대, 신규협력국 발굴 및 MDB 등 다자채널을 통한 EDCF 지원 다각화 등 전략적 운용 필요
- ② 비구속성/프로그램차관 사업 확대 및 기후변화/디지털 분야 지원 수요 증대 등 개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
- ③ EDCF 외연 확장과 더불어 수원국 위기관리 강화, 운영 체계 효율화 및 대내외 소통 확대 등 EDCF 가시성 제고 필요

Ⅱ. 중기 운용전략

1 기본 방향

- ◇ ODA 확대 목표, 경험 확대 필요성, 우리기업 진출 수요 등을 고려한 중기운용 규모 및 분야별·지역별 자원배분 계획 수립
- ◇ 글로벌 경기침체 하에서도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속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 제고 및 경제협력 강화



2 중기 운용 규모

◇ ODA 규모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23년 이후 향후 3년간 11.7조원 승인, 5조원 집행 추진('22~'24년 목표 11.4조원/4.5조원)

* ODA 규모를 세계 10위('21년 15위)로 확대(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19년(3.2조원)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21.1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승인 목표)** 집행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1.7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승인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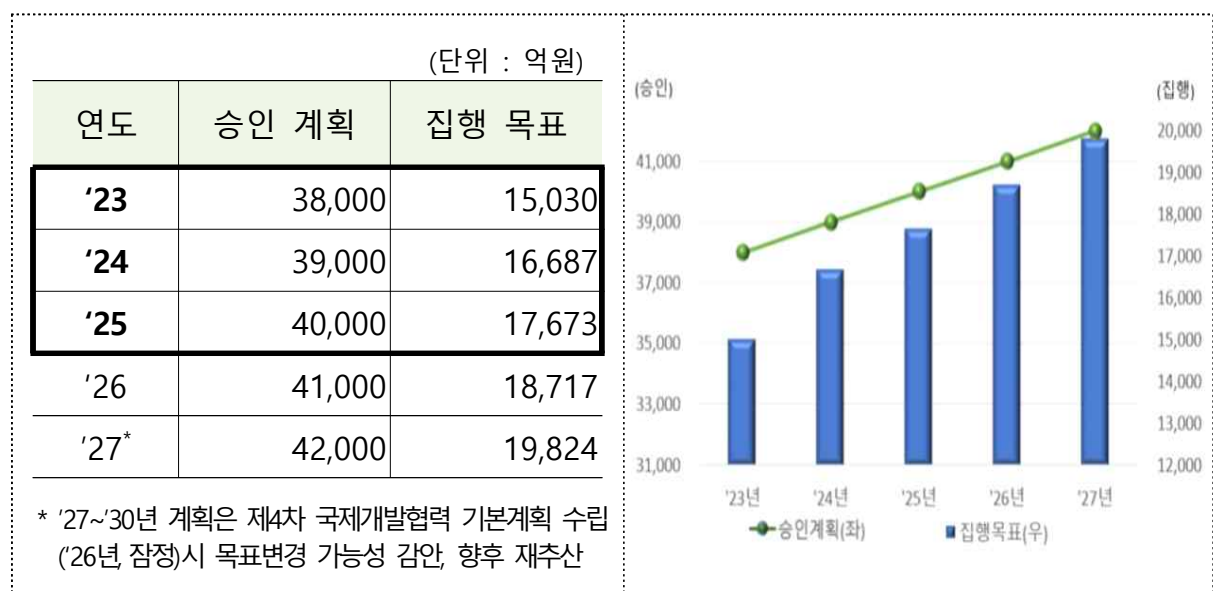
* 승인 후 장기간의 연차별 집행률 평균을 적용하여 승인 필요 규모를 산출
('10~'20년 평균 집행률 : (~3년) 7.1% / (~5년) 20.7% / (~10년) 65.7%)

○ '25년까지 매년 0.1조원씩 승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3년 3.8조원, '24년 3.9조원, '25년 4조원 승인을 추진

□ **(집행 목표)** ODA 총 규모 목표 달성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5조원의 EDCF 집행 목표 수립

* '30년까지 '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달성을 위해서는 '23년부터 ODA 총 규모를 연평균 5.91%씩 증가 필요('22.4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 매년 집행 규모를 약 0.1~0.2조원씩 증액하여 '23년 1.5조원, '24년 1.7조원, '25년 1.8조원 집행을 추진



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안)

- ◇ 그린·디지털 분야 중점 지원 지속('23년 19억불 → '25년 26억불)
- ◇ 아시아 집중(60~70%), 아프리카 확대(20~30%), 중남미 다변화(10~20%)

- 1] **(중점지원 분야)** 최근 실적 추이 및 잠재 개발수요 등을 반영, 그린 확대, 디지털 현행 유지 및 보건 하향 조정(승인 기준)

	기존 목표	신규 목표
그린	('24) 12억불 ('25) 14억불	('23) 12억불 ('24) 14억불 ('25) 17억불
디지털	('24) 8억불 ('25) 9억불	('23) 7억불 ('24) 8억불 ('25) 9억불
보건	('24) 9억불 ('25) 10억불	('23) 5억불 ('24) 7억불 ('25) 7억불

* '22년 실적(억불) : 그린 14.9, 디지털 12.1, 보건 6.6 / 점진적 실적 향상을 고려해 목표 설정

- (그린) '22년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감한 목표 설정 ⇨ ('23년)12억불, ('25년)17억불
- (디지털) 기존 분야에 ICT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혁신 확산을 위해 기수립한 도전적 목표 유지 ⇨ ('23년)7억불, ('25년)9억불
- (보건) 팬데믹 후 보건 재원 유입 급증*을 감안,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목표 하향 ⇨ ('23년)5억불, ('25년)7억불

* MDB 보건ODA 프로그램차관(백만불): ('13년) 40 → ('18년) 5 → ('19년) 147 → ('20년) 656

- 2] **(지역)** 경험 확대 필요성, 인프라 수요가 큰 아시아에 집중하고, 아프리카·중남미 전략적 투자로 우리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

- (아시아) 인태 전략 등 협력 확대 필요성, 수원국의 풍부한 인프라 투자 및 우리기업 진출 수요를 감안, 아시아 집중 지속(60~70%)
- (아프리카) 인구수 등 성장 잠재력과 인프라 개발 수요를 감안, 아시아에 이어 제2의 EDCF 상위협력국 육성 추진(20~30%)
- (중남미) MDB 협조용자 중심에서 우리기업 참여 가능성을 고려한 양·다자협력 다변화로 중남미 협력 기반 확충(10~20%)

Ⅲ. 중점 추진과제

1 전략적 사업 추진

① **(양자사업)** F/A 확대를 통해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상국가 다변화를 위해 신규협력국 지속 발굴

- F/A 규모 증액(베트남·방글라데시) 및 신규 체결(인도·르완다·코트디부아르 등)을 추진하여 대형 랜드마크형 사업비중 확대

* 1억불 이상 차관사업 비중('19~'21년 승인건수 기준, %) : 日 47, 獨 27, 佛 26 VS 韓 25

< EDCF 대형사업 지원 현황 및 목표(승인 기준) >

(단위: 백만불, 건)

구분	'15년	'17년	'19년	'21년	'25년
1억불 이상 승인액(건)	502(4)	734(4)	1,094(9)	1,258(9)	1,500
3억불 이상 승인건	-	-	-	-	2건

- 경험 잠재력, 대형 인프라 수요가 풍부한 신규협력국* 발굴

* '23년중 우크라이나와 EDCF 공여 협정 체결 추진 → 인프라 재건 참여기반 마련

② **(협조융자)** 국제금융기구(MDB)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직접 EDCF 사업발굴이 어려운 국가진출 및 혁신적 금융수단 활용에 참여

- 지역개발 전문기구(IDB·CABEI·AfDB 등) 등을 통해 직접 EDCF 사업 발굴이 어려운 중남미 국가*에 진출 기회 확보

* (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중남미 중점협력국이자 구속성 원조 제한국

< MDB별 협조융자 체결 현황 >

구분	WB	ADB	AfDB	IDB	CABEI
규모	3억불	7억불	6억불	5억불	3.4억불
기간	'22~'25년	'21~'24년	'21~'26년	'21~'25년	'22~'25년

- 신탁기금·정책자문 사업(KSP 등)과 프로그램차관 등 연계를 통해 우리기업 참여 가능성이 높은 개발차관 사업 발굴* 추진

* (예) 인니 전기차 충전 설비 로드맵 지원(ADB신탁기금, '20년) + 관련 정책 개선 프로그램 차관 지원(ADB협조융자, '22년) → EDCF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발굴 연계 추진

- MDB가 추진하는 혁신적 금융방식*에 참여해 EDCF 지원 방식 다각화 * (예) 既지원 사업에 보증을 통한 재원 추가 확보 등

2 개발환경변화 대응

① **(비구속성)** '25년까지 비구속성 60% 목표('21.1월 국개위) 지속 추진

- 베트남·필리핀·인니 등 EDCF 상위협력국의 소득 증가에 따른 구속성 원조 제한국 확대에 대비한 지원 체계 구축* 지속

* 중기 비구속성 후보 사업 DB 구축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목표 달성 전망 정기 점검 등

- 그린·디지털 등 EDCF 중점 분야이자, 우리기업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 후보사업 집중 발굴 → 우리기업 수주 가능성 제고

- 한편, 수주 실익이 낮은 소규모 사업 등에 수원국 기업 입찰 참여 허용 → 비구속성 확대 및 수원국 경제성장 지원 병행

* (예) 소형교량, 지방도로 건설 등 현지 조달 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사업 대상

② **(프로그램차관)** 경협 확대 가능성·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개국*을 대상으로 양자 프로그램차관 시범 사업 발굴 추진

* (아시아) 인니, 베트남 등 6개국, (아프리카) 이집트 등 3개국, (중남미) 콜롬비아 등 2개국

- 우리기업 강점 분야 집중, 구속성차관(기자재, 개발사업차관)과 묶음 설계 등 전략적 활용으로 우리기업 수주 기회 보강

③ **(기후변화 내재화)** EDCF 사업을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위험 관리·성과평가체계 운영 본격화

- 현재 시범 적용 중인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를 개도국 상황에 맞도록 보완(자료 수집범위 조정 등)하여 '25년 전면 도입 추진

* 사업발굴-실행-평가 쉼단계에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반영해 개도국 기후 대응 지원

<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 확대(안)>

'23년	⇒	'24년	⇒	'25년
F/S 발주사업의 25%		F/S 발주사업의 50%		F/S 발주사업의 100%

④ **(디지털 전환 지원)** 개도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 사업* 발굴 및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완화 지원 확대

* (예) 케냐 스마트 DMC 개발사업 :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로 도약중인 케냐에 디지털 미디어시티 조성('23년 승인 추진) 및 통합관제/모빌리티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 지원

- 과학인력 양성,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등 인재 육성 지원 병행

3 위기관리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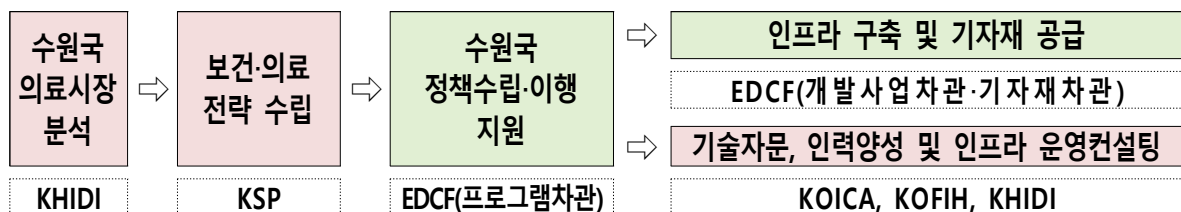
- ① **(수원국 위기관리 강화)** 수원국의 경제·사회 위기 모니터링 및 필요시 긴급지원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에 적극 동참
 - (모니터링) 대외채무 증가 등 경제 동향 수시 점검과 함께 IMF, G20, 파리클럽 등 국제사회 채무재조정 논의* 동참
 - * (예) 스리랑카 채무 재조정, 에티오피아 공동 프레임워크 채권국 협의회 등
 - (긴급지원) 수원국에 긴급상황 발생시 취약 계층 충격 완화 및 회복력 제고를 위해 긴급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
 - * (예) 긴급기자재차관 : 사업타당성 검토 절차 및 구매계약 간소화로 신속한 집행
- ② **(외화차관 운용 개선)** EDCF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인한 외화차관 집행 수요 증가*에 따라 외화차관 운용 효율화 추진
 - * EDCF 외화차관 집행액/비중 : ('10년) 159억원, 3.9% → ('22년) 2,359억원, 23.5%
회수 예정 외화채권 : ('22년 현재) 2천만불 → ('30년) 10천만불 → ('40년) 47천만불 전망
 - 외화자산을 EDCF 계정에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외화금고 신설 및 외화 직매입 도입 등 외화 조달방식 다변화
- ③ **(사업준비 내실화)** F/S(타당성 조사) 절차 개선을 통해 EDCF 사업 대형화·전문화에 부합하도록 내실있는 사업준비 시행
 - 정부간 정책협의를 ① F/S 후보사업의 조기 확정 및 ② 신청 절차 간소화로 대형사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검토 기간 확보
 - ① N년 발주사업 확정 시점: (현행) N-1년 4분기/N년 1분기 확정 → (개선) N-1년 확정
 - ② (현행) 수원국 차관 총괄부처를 통해서만 신청 → (개선) 주관부처 신청도 허용
- ④ **(성과관리 체계화)** 사업 완공 후 평가 결과가 신규사업 승인시 실질적으로 반영 되도록 지표수립-관리-결과활용 체계 정비

< 성과평가 지표 관리 강화 방안(안) >

① 지표수립	② 지표·데이터 관리	③ 사후평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성과관리 체계 수립 및 데이터 축적 · 성과지표 영문표준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공평가지 지표 적절성 검토 · 단기, 중장기 지표 데이터 축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효과성 측정 등 평가 · 사업별 사후평가 결과를 신규사업 지원시 적극 활용

4 EDCF 인지도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① **(성과공유 확대)** EDCF 성과공유 컨퍼런스 정례화, 개도국 현지 워크숍 신규 개최, 뉴스레터 배포 등 대내외 아웃리치 강화
 - 3~5년 주기 성과공유 행사 개최 및 매년 1개국 현지 고위급 워크숍을 실시하고, 사업 현장·성과를 담은 뉴스레터 발행(반기별)
- ② **(청년 전문가 육성)** 청년 지역전문가 파견, 대학 학위 과정에 EDCF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청년 전문가 생태계 조성
 - 매년 청년 3~40명을 개도국 현지사무소 인턴으로 파견하고, 국내대학원 전공과정에 EDCF 성과평가 관련 커리큘럼 도입
- ③ **(유무상 연계 강화)**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패키지 사업 구성, 분야별 전문기관 협력 추진 등 유무상 협력 확대 지속
 - 보건·의료 전문기관 등과 사전 전략수립부터 사후 운영, 기업진출 기반 조성까지 연계 지원체계 구축 및 他분야 확산 추진



* KHIDI 보건산업진흥원, KOFIH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④ **(DFI · MDB 협력강화)** 양/다자 파트너십으로 협력 채널 다양화 및 글로벌 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EDCF 가시성 제고
 - 개발금융기관과 협력 채널 구축*, MDB 연례협의 등 적극적 아웃리치로 ODA 경험 공유 및 글로벌 아젠다 공동 대응

* (예) 韓 기재부 - 英 BII 소관 부처 간 국장급 협력 채널 신설 추진

- ⑤ **(기업과 소통 확대)** 국내·현지 진출 우리기업과 간담회 수시 개최
 - 사업발굴, 집행 등 쉼 과정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적극 지원
- * (예) 물가·환율 급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업비 증가시, 수원국 정부에 예비비·보충융자 적극 지원 방침 안내를 통한 사업비 증액분 보전 지원 등

IV. 향후 추진계획

①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23.1월)

- 주요 수원국 대상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사업 발굴
-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홍보

②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월별 점검

구 분	추진 전략	일 정
전략적 사업 추진	F/A 확대 및 신규협력국 발굴	'23.上
	협조용자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연중
개발환경변화 대응	중기 비구속성 후보사업 선정/추진 이력 점검	연중
	프로그램차관 시범사업 발굴	연중
	기후변화 내재화/디지털 전환 지원	연중
추진체계 정비	외화금고 설치 및 외화조달 방식 다변화 추진	'23.上
	F/S 절차 개선 및 수원국 통보	'23.1분기
	성과평가 DB 축적 전산시스템 개선	'23.上
인지도 제고 및 협력 강화	수원국 현지 성과공유 워크숍 시범 개최	'23.1분기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3.下
	EDCF 성과평가 전문가 과정 시범 추진	'23.上
	기업간담회 개최	수시
중기 목표 달성	3억불 이상 대형사업 승인(2건)	'25년
	유상 ODA 비구속성 지원 확대(60%)	'25년
	기후대응체계 적용 확대(F/S 발주사업의 50%)	'24년

참고 1

EDCF 기본약정(F/A) 체결 현황

- F/A는 정부 간 중기 지원한도·기간을 설정하는 포괄적 약정, 그 범위 내에서는 개별 사업 승인에 대한 약정(A/R) 체결 생략
 - 승인 절차 간소화, 양국 간 중기 협력의사 확인, 수원국 내 유망한 중기후보사업 확보 등 순기능 보유

지 역	국 가	F/A 기간	F/A 한도	갱신·체결 협의(안)
아시아	라오스	'20~'23년	5억불	
	방글라데시	'21~'25년	7억불	'23~'27년 30억불
	베트남	'16~'23년	15억불	
	인도네시아	'22~'26년	15억불	
	파키스탄	'22~'26년	10억불	
	필리핀	'22~'26년	30억불	
	캄보디아	'22~'26년	15억불	
CIS	우즈베키스탄	'21~'23년	10억불	
아프리카	가나	'20~'24년	10억불	
	세네갈	'21~'24년	5억불	
	이집트	'22~'26년	10억불	MOU 형식 ¹⁾
	케냐	'22~'26년	10억불	
	탄자니아	'21~'25년	10억불	
신규 체결	르완다	-	-	'22~'26년, 5억불
	인도	-	-	'23~'26년, 40억불
	코트디부아르	-	-	'23~'27년, 10억불

- 1) 이집트는 자국 법령상 기본약정(F/A) 체결 시에도 사업별 약정(A/R) 체결 필요
 → 우리 절차상 F/A와 A/R은 양립 불가하여 기본약정(F/A) 대신 지원한도 MOU 추진

참고 2

EDCF 지원절차 및 차관 관련 협정 유형

1 EDCF 지원절차

정책협의 및 사업발굴 → 타당성조사 → 차관신청(수원국) → 심사보고(수은) → **사업 승인**(정부지원방침) → 시행약정(A/R)·차관계약(L/A) → **상세설계** → **본사업 착공***

* 승인액은 중장기(3~5년) 분할 집행되므로, 연도별 승인액은 집행액을 크게 상회

2 EDCF 차관 관련 협정 유형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공여협정 (A/G; Agre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적시 - 양국간 EDCF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 * 차관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보증, 해상운송 보험 관련 사항, 사업 관련 한국인 편의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10년의 유효기간(양국 이견 없을시 자동 연장) - 구체적인 지원사업, 지원금액 등 미포함
기본약정 (F/A; Framework Arran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일정 기간(3~5년) 당해 수원국에 대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명시 - 기타 차관지원 관련 편의 보장* * EDCF 사업 관련자에 대한 편의 지원, EDCF 사무소에 대한 설립 허가, 면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 체결국은 개별 사업별 A/R 체결 생략 - 다수의 사업 지원 시 F/A로 소요기간 단축
시행약정 (A/R; Arran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를 근거로 개별사업별 구체적 지원 조건(사업명, 지원금액, 금리 등) 명시 - L/A 체결 근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 미체결국은 사업 승인 후 사업별 체결
차관계약 (L/A; Loan Agre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차관금액, 용도, 상환방식 등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 - (붙임) 컨설턴트 고용기준, 자금지출절차, 일반조건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약정과 달리 수은-차주 간 체결 - F/A, A/R을 근거로 개별사업별 체결